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송호신문 窓

제22회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이 메 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발행인 정창덕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이 한 |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 입학 상담 : 033-340-1041~1042

취업역량 강화 위해 취업캠프 진행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이틀 동안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우리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라이즈업파트너스가 주관한 취업캠프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경력로드맵, 레고를 활용한 나의 강점 찾기, 면접 이미지 스타일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대 1 첨삭, 면접 프로세스 및 매너, 퍼스널 컬러 진단, 조별 코칭, 모의 면접 및 개인 피드백 등의 프로그램들로 진행 되었다. 이번 취업캠프의 목적은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에게는 재학 중 취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사회진출 전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취업 스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캠프에는 간호학과, 방사선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40여 명이 라이즈업파트너스사 취업 진로 교육 전문 강사(장성미, 신호진, 이순화, 박지현, 구혜란, 양수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취업강화를 위한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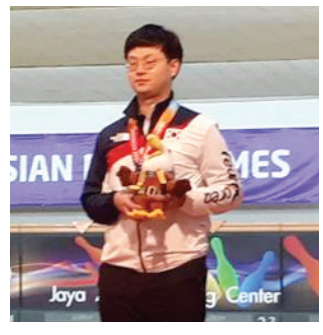
이날 행사를 주최한 취·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 김갑중 교수는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그에 맞는 취업 스킬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실제로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모의 면접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알았으면 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겪게 될 어려움과 고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방사선과 2학년 원창희는 "아직 졸업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 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취업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1:1 첨삭지도를 해주었던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한 기자

오반석 스포츠레저과(산업체위탁과정) 아시안 패러 게임 2관왕





우리대학교 오반석(산업체위탁과정, 21) 선수가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회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러 게임 볼링경기에서 개인전과 2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을 달성하였다.

오반석 선수는 현재 직장인대학 산업체 위탁과정으로 스포츠레저과 1학년에 학생으로서 (주)제이스테판 회사에 다니며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올해 경기 실적은 안양시장배 전국장애인 볼링 대회 1위, 강원 도지사배 및 종목별(볼링) 선수권 전국 대회 1위, 제64회 경기도민 체전 볼링대회 1위, 말레이시아 월드 투어 2인조 1위 개인전 3위,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개인전 1위. 2인조 1위, 안양시 협회장배 전국대회 1위, 시흥시장배 전국 대회 1위를 입상을 하였다.

오반석 선수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릴 적에 과잉 행동장애가 심해 부모님께서 넘치는 저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볼링을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며, 오반석 선수의 차후 진로 방향은 "현재 장애인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일반으로 경기종목을 바꿔 일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이며, 세계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일반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태근 기자

예비 합격자를 위한 대학 방문 프로그램 실시

우리대학교는 지난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예비 합격자와 지역 고교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예비 합격자를 위한 대학 방문 프로그램의 취지는 진로에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합격하고도 방향을 잡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어 진로 및 진학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고등학교는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안흥고등학교로 총 26명의 지역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과 탐방은 각 학과의 조교가 학교에 개인적으로 도착한 학생들을 인솔해 학과 내 실습실이나 강의실을 소개하며 각 학과의 특성 및 미래진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김낙상 입학처장은 "지역 고교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지역 고교와 우리 대학 간의 유기적이고 상호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주고 미래의 목표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기대를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합격자는 "직접 학교에 와서 보니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 같다. 빨리 입학하여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느껴보고 싶고 전공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졌다."라고 전했다.

정지윤 기자

2019학년도 송호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입학처 033-340-1041~2
(우)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원서접수]

정시모집 '19. 12. 29.(토) ~ '19. 01. 11.(금)
- 면접 : '19. 01. 15.(화) - 합격자 발표 : '19. 01. 18.(금)

자율모집 : '19. 02. 14.(목) ~ '19. 02. 28.(목)

교육복지분야 | 사회복지과(야간)
관광레저분야 | 관광(대명)리조트과, 스포츠레저과, 뷰티케어과, 호텔외식조리과, 문화콘텐츠융합ICT과
보건의료분야 | 간호학과(4년제), 방사선과,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도서관 행사 '책을 읽는 향기' 개최



우리대학교 도서관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책을 읽는 향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의 취지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여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인문적인 소양, 지혜, 마음의 양식을 쌓길 바라는 데 있다.

본 행사는 3가지 항목 (독서퀴즈, 다독자, 한 줄 서평)으로 진행되고, 독서퀴즈는 매주 월요일 진선미관 앞 게시판과 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제를 확인하여 대출대에 비치된 답안지에 제출하면 주차마다 정답자 중 5명(총 20명)을 추첨하여 각 1명당 CU 5,000원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다독자에게는 행사 기간 중 전자도서관 시스템 기준 도서 대출 권수가 가장 많은 대출자 5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30,000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전자책 한 줄 서평은 도서관 전자책 홈페이지 내 대출한 전자책에 대한 한 줄 서평을 작성하여 학번과 휴대번호를 적어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20명을 추첨하여 CU 5,000원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송호마일리지 50점이 주어지고, 입상자를 제외한 다독자 우수자 5명에게는 송호마일리지 100점이 주어진다. (전자도서관 마일리지 적립방법 : 로그인+1, 도서신청+2, 도서 대출+3)

김소원 기자

송호 학습 UCC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리대학교는 15일 송호관 2층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습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8학년도 송호 학습 UCC 공모전' 은 재학생들이 직접 학습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학습법 공유 및 학습 동기를 향상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UCC 동영상 제작 안내 교육을 거쳐 UCC 공모 작품 접수를 진행했으며, 총 3개 학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문화콘텐츠융합 ICT과)가 참여, 9팀의 재학생이 지원했다.

UCC 공모 작품은 창의성, 내용의 우수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우수작 7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입상 기준:70점)

이번 공모전에선 '전공 학습 방법 및 대학생활 노하우'를 주제로 한 인싸(원창희, 서윤종, 김동성)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아 5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대상을 받은 방사선과 2학년 원창희 학생은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UCC를 제작하며 전공학습 방법 및 대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였다. 함께 땀 흘린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백수현 기자

학과 슬로건 경진대회

우리대학교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학과 슬로건 학과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과 슬로건 경진대회는 학과의 정체성 확보와 특성 및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입시와 학과 홍보 활용을 통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입학 모집 단위 전문학사학위 과정 전체(관광대명리조트과, 간호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문화콘텐츠융합ICT과) 이다.

제출 방법은 슬로건(글씨체 및 이미지 작업) 완료 인쇄본 1부, 파일 1부, 우리 학과만의 특성 및 자랑 이미지화, 슬로건 설명서 1부까지 총 3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단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상표권 분쟁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수상작 및 제출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우리대학교로 귀속된다.

수상자 선정방법은 학과소속 교원 및 전체 및 행정직원이 심사하며 수상자에게는 학과별 1팀을 선정해 300,000원 *11개 학과 총 3,300,000원이 지급된다.

백수현 기자

자기 탐색을 위한 심리검사 진행

우리대학교에서 "2018년 2학기 자기 탐색을 위한 심리검사"가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생생활상담실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리검사의 목적은 학생들이 잠시 자신의 정서적 상황을 점검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장래 취업과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신청방법은 송호관 2층 학생 생활 상담실을 방문하여 검사 일정을 확인 후 진행하며, 검사의 내용은 정신건강, 취업/진로, 학업/학습, 성격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 검사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한다.

검사 실시와 함께 마일리지 20점이 부여되며 해석시행과 개인 상담은 회당 20회가 부여된다. 단 여러 검사 도구를 실시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는 2회로 제한한다.

심리검사를 한 익명의 학생은 "그동안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자세히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리검사를 통하여 내 자신의 심리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억압되어 있었던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백수현 기자

제2회 상담수기 공모전

우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상담 수기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공모전의 주제는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었던 점"과 "상담 경험을 통한 변화"와 관련된 것이며 총 32건이 접수되었다. 심사기준은 구체성(40점), 논리성(30점), 진실성(30점)으로 우리대학교 정창덕 총장과 학생 생활상담실 운영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심사 진행을 맡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발된 우수작은 교내 홍보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고, 선발된 최우수상 1명에게는 장학금 30만 원과 송호마일리지 100점, 우수상 2명에게는 장학금 20만원과 송호마일리지 70점, 장려상 3명에게는 장학금 10만원과 송호마일리지 100점, 참가자 전원에게는 50점의 송호마일리지가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상담실에서는 자기 탐색을 위한 심리검사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진로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특히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실 홈페이지에서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온라인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수기 공모전에 참여한 익명의 한 학생은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러워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처음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부터는 자연스럽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실을 찾곤 한다.

상담을 받고 나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되고 의기소침해 있던 부분이나 괴로웠던 부분이 사라진다. 그동안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태근 기자

학교소식 01

2018 횡성군 취업박람회 개최





우리대학교와 횡성군이 공동 주관하여 지난 11월 20일 2시부터 4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횡성군청장을 비롯하여 우리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 행사는 '융합컨텐츠와 브랜딩으로 승부하라'란 주제로 강의력 발전소 최창수 소장의 구직자 대상 강연도 진행되었다.

취업박람회에는 노인, 여성,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정보, 창업·기업지원 상담, 직업교육 안내 등이 있으며, 지역 우수업체 19곳이 참여하며 업체에서 준비된 음료 및 음식들이 제공되었다. 또한 사무·관리직, 생산직,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상담 및 현장 채용 면접도 진행되었다. 강원 중소 벤처기업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등 11개 관계 기관도 참가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클리닉, 지문적성검사, 직업 심리검사, 실업급여상담 등의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우리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장 김갑중 교수는 "교내로 행사지를 국한 짓지 않고 횡성군으로 확대하면서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들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면서 기업과 구직자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한 기자

학교소식 02

사회복지학과, 송호복지인의 밤 개최



지난 11월 22일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송호복지인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송호복지인의 밤' 행사는 사회복지과 선후배 간의 소통·화합·협력을 통해 학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가치관 확립과 자질에 대한 함양 및 전문성과 책임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장수호 목사, 학과 교수 및 교직원, 사회복지과 동문 등 여러 내외빈이 행사에 참석하여, 예비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해주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는 장수호 목사의 기도, 이광모 학과장 및 전임교수의 인사말, 사회복지과 선서식, 캡스톤디자인 작품 발표, 창업아이디어대회 발표, 시상식, 활동 영상 시청이 차례로 진행됐다. 2부는 식사와 레크레이션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캡스톤디자인 작품발표의 주제는 1조(레인보우, 권순근, 김미정, 안재항, 이기화, 이상윤, 이혜경, 조정환) '독거노인과 나눔 친구가 되어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 2조(강력 18반, 고정미, 박세연, 서유정, 이광섭, 전수용, 최은진, 한채연, 허정화) '횡성군 복지지도 만들기', 3조(트렌스포머, 원선옥, 윤준영, 이소정, 이혜영, 이화숙, 최민경, 황순란) '생활용품의 지혜, 생활용품의 변신은 무죄'로 이광모 교수, 이재용 교수, 이기호 교수의 지도로 발표했다.

이한 기자

학교소식 03

임상병리과 제5회 '가람제' 개최

우리대학교 임상병리과에서 지난 11월 22일 3시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제5회 가람제가 개최되었다. 가람제의 목표는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고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검증하는 과정을 습득하면서 연구자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본 행사의 주제는 카페인이 혈액 성분 중 칼슘에 미치는 영향, 운동 강도가 산화 스트레스와 텔로미어 길이에 끼치는 영향, 모기가 좋아하는 체질, 체액검사를 통한 암세포 연구로 총 4조로 진행이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 간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1, 2학년 때 배운 교과목과 연계하여 평소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약 1개월간의 문헌정리와 실험, 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거친다.

가람제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했다. 1부는 각종 초청된 교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선서식과 현장 실습을 위한 임상병리 교과목 수료 기념 뱃지를 수여하고 기념촬



영이 진행됐으며 2부에는 학생들의 학술포럼 발표가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임상병리과 최우순 학과장은 "가람제에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도 강화되고 능률적인 학습방법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알길 바라는 마음이다. 내년에는 더욱더 멋진 연구로 가람제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지윤 기자

학교소식 04

제 6회 치위생과 '미소제' 개최





지난 8월 11일 오후 12시 우리대학교 치위생과가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제6회 미소제'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예비 치과위생사이자 미래 전문인의 책임과 긍지를 갖고 국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고 학생들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대학교 정창덕 총장을 비롯하여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등 여러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정창덕 총장의 격려사에 이어 치위생과 전임 교수들이 예비 치과위생사인 2학년 학생들에게 핀을 달아주며 격려해주었으며 촛불에 불을 밝히고 선서식을 하였다. 선서식 후 치위생과 1, 3학년 학생들의 축가 및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학년 박지혜 학생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예비 치위생사로서 선서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다. 특히 촛불을 밝히면서 미래의 치위생사로서 자긍심이 느껴졌으며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해 면허를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 꿈은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치위생사로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한 기자

학교소식 05

제9회 방사선과 '송방제' 개최



지난 10월 26일 방사선과 학생회 주관으로 교내 창조관 1층 세미나실에서 송방제가 개최되었다.

이날 우리대학교 정창덕 총장의 축사와 함께 장수호 목사의 기도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1부는 학술의 장으로 예비 방사선사로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사선사 선서식과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는 선후배 간 화합을 위한 멘토·멘티 선서식, 학술제의 꽃인 2학년 학생들의 논문발표 및 1학년 학생들의 실험 실습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가 진행되었다.

2부는 화합의 장으로 1,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준비한 응원 영상과 멋진 축하 공연 장기자랑으로 한껏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또한 현 8대 학회장 장지호 학생은 부학회장 강민조 학생과 9대 학회장 이유진 학생과 부학회장 김연수 학생에게 인수 인계서를 전달해 9회 학생회 취임식이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이주영 학과장 폐회사로 제9회 방사선과 송방제가 막을 내렸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이광민은 "2학년 선배님들이 논문발표와 방사선사 선서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사선과를 선택한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방사선사가 되어 제 꿈을 이루겠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러운 방사선사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태근 기자

부서탐방 취 · 창업지원센터

취 · 창업지원센터는 경제 동향과 산업체의 요구를 수집 · 분석하여 대학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로 취업 및 창업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확대 및 창업아이디어와 육성발전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대학교 취 · 창업지원센터를 소개한다.

취 · 창업지원센터는 'A(admission) 가장 입학하고 싶은 대학', 'C(College) 가장 교육 만족도가 높은 대학', 'E(Employment)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정하여 전공직무 능력과 취업의 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취업 ACE 대학을 구현하고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지원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미래형 전문인력 배출하며 올바른 진로 의사결정을 위한 진심 취 · 창업 상담 및 취 · 창업동향 제공 및 맞춤형 취업컨설팅 및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취업 지원으로 프로그램 만족도와 취업률 7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교직원 모두의 전방위적 진심 취 · 창업지원 마인드 조성에 힘쓰고 있다.

취 · 창업지원센터의 추진전략으로는 국내 취업, 해외 취업, 창업 등 취업 목표에 따라 취 · 창업지원프로그램 로드맵화 및 학생상담, NCS 교육과정, 인성교육, 전공교과목과 연계성 있는 취 ·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취 ·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경력 마일리지제도와 연계, 자기 주도적 이력 관리를 위한 취업목표달성, 학생들의 현장 실습 교육,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교기업' 설립을 통해 실무 적합형 인재양성, 지역사회 협력 및 대학 재정에 기여한다.

취 · 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 김갑중 교수는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발전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졸업 후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여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센터장으로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자존감스피치

대학 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가까운 키워드를 통해 자아를 돌아보며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가공하고 전하는 연습을 통해 자아를 찾아 나가는 훈련의 시간, 나아가 입사서류작성과 면접 준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존감 향상, 회복을 통한 관점의 전환,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생활을 및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력서&자소서 특강

취업 교육으로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 취업 기능 향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취 · 창업골든벨

취 · 창업상식, 일반상식, NCS 상식 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한다.참여하기 쉽고 부담 없는 취 · 창업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 흥미 유발과 도전으로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교내 취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예비창업자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산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아이템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문가와 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아이디어 현실화와 제품화를 지원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내재된 아이디어와 창의성 발굴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캠프

자기 성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인재 전략적 경력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가진 인재 면접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자신감 형성 취업에 필요한 실전 이력서&자기소개서 점검 예비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든다.

취업박람회

지역과 협업을 통해 재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산업체 정보를 얻어 지역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생들의 취업 의식 고취, 취업 활성화, 산업체와의 의미 있는 소통의 기회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학생들에게 지역 산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

횡성 · 원주 관내 기업 또는 산학협력 체결 기업, 가족회사의 지속적 관계유지 및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마련한다.

이한 기자

구성원 및 주요업무

취 · 창업지원센터장

센터장 **김갑중**

033-340-1036 kim69gj@songho.ac.kr

- 취 · 창업지원센터 업무 총괄

취 · 창업지원센터 직원

직원 **홍성민**

033-340-1037 mee101@songho.ac.kr

- 각종 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업무
- 구인접수 및 업체발굴, 미취업 졸업생 사후관리 지도



한학기를 마치면서.. (교직원)

송시내 선생님 (사무처 총무회계팀)

3월에 벚꽃 축제를 교직원 주관으로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다. 교직원분들께서 개인의 소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횡성군에 '송호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일동'으로 하여 기부를 했다. 다음에 또 시행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우리대학교에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싶고, 학생들 또한 많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에 조금 더 열정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시험 기간에 화장하지 않은 모습, 예쁜 옷을 입지 않아도 너무 예뻐서 지금 주어진 시간을 아깝게 쓰지 않고 의미 있고 뜻 깊게 또 알차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신보라 선생님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도서관)

2학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다면 도서관 행사이다. 독서퀴즈, 다독자, 전자책 한 줄 서평 3가지로 4주 동안 진행하고 있다. 작년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서관 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많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다. 그리고 방학 동안 도서관 환경개선을 시행 할 예정이다.

정보검색실이 있고, 참고 열람 대출자료실 안에 정보검색 코너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서 PC를 한 곳으로 몰고 서가를 추가하여 더 많은 책을 진열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한, 국가사업 지원금이 들어온다면 일반열람실에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매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를 마치면서 독서에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느꼈다. 전공도서만이 아니라 교양 도서에도 관심을 가져 사회로 나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또한 도서관 이용을 하면서 정보검색 외에도 독서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박종욱 선생님 (교무처)

8월에 입사하여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업무수행을 계속하면서 시스템에 적응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 2학기를 보내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는 학생분들 덕분에 항상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방학 동안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침서를 만들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학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학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이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때를 생각하면 학교생활에 힘든 점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다. 힘들고 각박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힘내라는 위로를 전하기보다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지금 대학 생활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고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다.

한학기를 마치며.. (학생)

김은경 (관광(대명)리조트과 2학년)

2학기를 마치면서 부득이하게 타과 수강으로 유아교육과를 수강하게 되었다.

수업에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 많아 재미있었다. 또한 타과 수강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한 학기 같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영준 (사회복지학과 1학년)

학교에서 근로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려니 많이 힘들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수업에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편하게 강의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를 하면서 많은 일 처리로 힘들기는 하지만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방학 동안에도 근로를 하며 지낼 생각이며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 여러분들께도 근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 그 이유는 취업할 때, 취업 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은경 (유아교육과 2학년)

2학기 동안 힘들었던 것은 시험공부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시험 범위도 많고 무엇보다 암기하는 것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2학기를 마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방학 동안 실습을 앞두고 있어 많은 걱정이 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반을 맡을지, 아이들은 어떤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떨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이 있다.

조이삭 (유아교육과 2학년)

2학기를 마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송호대학교에서 E - Sports에 출전일 것이다. 과 동기 3명, 타과 2명과 함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 출전하여 단합도 하고 우승도 하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이번 방학 동안에는 보육실습이 있어 실습할 예정이다. 처음 하는 실습이라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된다. 실습이 끝난 후에는 횡성 군청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방학을 보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2학기를 보내면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많이 힘들고 학점관리에 소홀했지만, 다음 학기에는 학점관리를 열심히 하며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김태윤 (유아교육과 2학년)

매년 해왔던 일이지만 2학기 동안 제스트(댄스동아리) 정기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정기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습하며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 또한 함께하는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연습 시간을 맞추는 것과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귀가하는 일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즐겁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11월 26일에 제스트 정기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방학 동안 실습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모아 일본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그리고 16학번으로 친구들은 졸업하는데 혼자 17학번 친구들과 남겨지는 것이 쓸쓸하지만 남은 학교생활도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한다.

김현아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동안 기억에 남았던 것은 대인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즐겁고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현재 국가고시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것 같다.

이번 방학 1월 말경에 국가고시가 있어 그동안은 국가고시 준비에 전념하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학기를 마치면서 저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든다. 졸업 마지막 학기라서 시원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졸업 후에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심하영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처음으로 병원에 취업한 것이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면접 준비로 인한 압박감도 있었지만, 그 끝에 취업이라는 꿈을 이루어 성취감이 컸다. 이후 방학 동안에는 국가고시에 전념하여 국가고시를 잘 치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국가고시 이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2학기가 졸업 학기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알찬 학기 생활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한 느낌이 든다.

이승민 (간호학과 4학년)

2학기가 마지막 졸업 학기로,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 운동을 하게 되었다. 운동하면서 식단조절도 같이했는데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몸도 많이 좋아져 뿌듯한 마음이 든다. 이후 방학 동안에는 1월 말경에 있는 국가고시 공부를 하며 지낼 생각이며, 국가고시가 끝난 이후에는 학교에서 근로하며 방학을 보내고 취업 전 여행을 다니려는 예정이다. 또한 취업한 병원 근처에 집을 알아보려는 계획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13년도 입학했을 때는 졸업을 빨리하고 싶었지만 입대로 인해 휴학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졸업하려니 사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기대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윤정 기자

학과 탐방

마음의 휴식처를 만드는, 관광(대명)리조트과!

송호대학교의 학과 중 휴양지의 숙소와 호텔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광(대명)리조트과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리조트과란?

폭 넓은 서비스 중 호텔이나 여행사, 놀이시설, 워터파크, 관광휴양지처럼 영역이 넓어지면서 특화된 영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며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는 학과이다. 또한 현재 해외나 국내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부응하기 위한다는 것은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는 이유에도 포함되어 있다.

관광 리조트과의 '대명'은 무슨 뜻인가?

송호대학교는 관광 리조트과로 시작했지만 학교에서 대명레저산업과 양해 각서를 작성하여 관광(대명)리조트과 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지평선을 만들어 학과 자체에서 대명 리조트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셈이다. 또한 대명레저산업은 대기업 리조트산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취업에 대해서는 밝게 조명이 비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3-2-1 교육방법을 지향하며 2학년 2학기부터는 학교 수업 없이 대명리조트의 인턴직으로 채용되어 초반 180만 원 급여가 지급되며 1년 동안 인턴직이 끝날 시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연봉 20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관광(대명)리조트과의 장점이란?

입학과 졸업, 취업이 한 묶음으로 되어있어 실습이나 면접을 준비할 것을 끝 맞춘 뒤 최종 2학년 2학기 때 인턴직으로 채용이 되어 진·출입이 매우 확실하다는 것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등 학생들 또한 미래 직업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어 대명레저산업 쪽의 관심을 갖고 있어 미래의 관광 리조트과의 생존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 장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도 늘고 있고 다양한 활동 거리가 많아지는 현재이기에 리조트의 전망은 넓고 밝다고 볼 수 있다.

거의 제주도나 휴양림 쪽으로 100여 명의 송호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 학생들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살아있다' 라는 단순함과 내가 '존재한다' 라는 이 놀라움을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신조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키틴 선생의 말씀으로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을 꼭 기억해 항상 현재를 즐기고 노력한다면 최고의 송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목표를 쟁취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목사 칼럼

– 송호대학교 교회 장수호 목사

삶이 꼭 이기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아이들 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운동회 순서 중에 살아남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전체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서, 선생님이 내주는 'OX' 퀴즈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맞히며 운동장에 남고, 틀리면 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두 학생이 남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학생은 2학년이었고, 다른 학생은 고학년이었습니다. 우승자를 결정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틀렸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속이 많이 상했는지 막 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대견하고, 다른 학생들은 다들 부러워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겨서 우승하고 싶었는데, 우승하지 못한 그 학생의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경쟁에서 지고, 시험에서 떨어져 좌절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꼭 이기기 위한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때로는 질 것을 뻔히 알지만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게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비록 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자신은 더 성숙하고 세상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진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가치에 상처를 주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통해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했던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 에티커스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으로 재판에 회부된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을 변호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흑인을 변호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실을 지키고자 애씁니다. 흑인을 변호하는 아버지 때문에 어린 스카웃과 오빠 젬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딸 스카웃은, "왜 흑인을 변호하세요?"라고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자신이 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흑인을 변호해야 하는지를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재판을 맡지 않고는 이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고 너와 젬(스카웃의 오빠)에게 어떤 것이든 가르칠 수조차 없게 되지..."

아버지는 삶의 기준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흑인 톰을 변호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딸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냐고 묻는 딸에게 아버지는 분명하게 "No,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냐는 딸의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 백 년을 이어 내려온 모든 것이 꼭 이기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단다.."

결국 아버지는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심은 이긴 자들보다 더 자유로웠고, 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로 인해 좀 더 풍성해졌습니다.

세상은 꼭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기억하지도 않고, 꼭 이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성숙하고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보내는 환호 소리만큼 크게 들리지 않지만, 세밀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한다면, 세상은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란 작은 소망을 가져 봅니다.



횡성군 제12회 '안흥찐빵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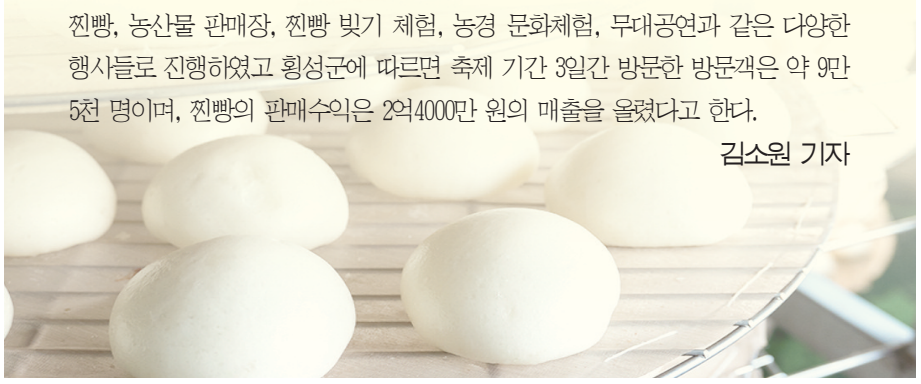
지난 10월 12일 강원도 횡성군 안흥찐빵마을 일원에서 제12회 안흥찐빵 축제가 3일간 개최됐다. 안흥찐빵 축제는 전통적 명맥과 어머니의 손맛, 고향의 인심을 담아 도시민에게 고향의 그리움을 자극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할 뿐 아니라 안흥찐빵의 맛과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안흥찐빵이 가진 브랜드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를 확고히 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지역에 내재한 문화적 특성과 주민의 역량을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가치 창출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9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8년 제12회가 개최되었다.

제12회 안흥찐빵 축제는 안흥찐빵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방문객들의 재미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8년 안흥찐빵 축제는 안흥찐빵 주제관, 안흥찐빵 먹기 대회, 백일홍 꽃밭, 찐빵, 농산물 판매장, 찐빵 빚기 체험, 농경 문화체험, 무대공연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하였고 횡성군에 따르면 축제 기간 3일간 방문한 방문객은 약 9만 5천 명이며, 찐빵의 판매수익은 2억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김소원 기자



우리 대학교 알기 정답 및 정답자 발표

빈칸 채우기

- 우리대학교의 교훈은 정의로운 인성을 갖추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재.
- 맛있는 식사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과 도서관이 있는 건물명은 진선미관이다.
-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선도해 가는 첨단 관광리조트 전문인 육성하는 학과는 관광(대명)리조트과 이다.

자음 퀴즈

- ㄱㅇㄷ ㅎㅅㄱ ㅎㅅㅇ ㄴㅅㄹ ㅇㅇㄱ ㅅㅎㄷㅎㄱ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 ㅅㅎㅇㄴㅂㅅㅌ
  송호유니버시티
- ㅂㄱㄱㅎㄱ
  보건과학관

당첨자 박관용 a***@naver.com 이광민 l***@gmail.com 전거로 r***@naver.com 이지연 t***@naver.com 정성준 s***@daum.net

'횡성 한우축제' 개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 동안 횡성군에서 한우 축제가 개최됐다.

한우 축제는 횡성의 대표 축제로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여 백성들의 편안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로 개최된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우 축제는 매년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2018년 한우 축제는 대형 한우 구이 터, 한점 하우스, 발골 퍼포먼스, 스탬프 투어, 백일홍 꽃밭, LED 빛 축제, 전통주 무료 시음회,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형 한우 구이 터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기회를 제공했고, 한점 하우스는 롯데 호텔 셰프와 우리대학교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요리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한우 축제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끌었던 이벤트는 스탬프 투어로 축제장 내에 배치된 곳에서 스탬프를 찍어 응모하면 하루 2번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이다. 2018 한우 축제는 개막식, 폐막식뿐만 아니라 매일 밤 불꽃놀이가 진행되어 축제에 즐거움과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인순이, 변진섭, 노라조 등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여 흥미로운 공연을 선보였고 마지막 날에는 김건모 단독 콘서트로 수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윤정 기자



기관 · 단체 임원선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이다.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서비스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때문에 학생회나 기관 · 단체의 임원을 뽑는 선거,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건 채택 등 다양한 투표에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 (http://www.kvoting.go.kr)을 이용한 투표는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되며, 선거제도의 4대원칙과 IT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최근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단체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관리과)나 가까운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033-251-4408] [☎033-345-1390]

